

조선시대 여복포 장옷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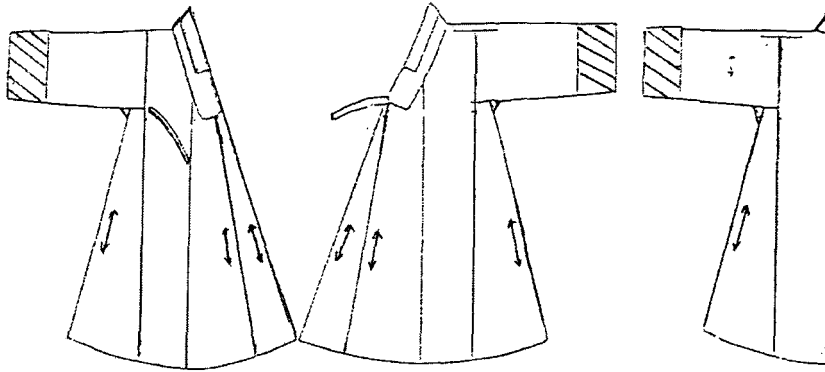
조 오 순

국립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장옷(장옷)은 궁중 및 양반부녀의 쓰개로서 조선왕조 초부터 말까지 사용되어진 두루마기 형식의 옷이다. 그러나 동학 난 이후, 개화와 더불어 생활의식의 변화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이화여대 유물 소장품 장옷(1920년대)을 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구성법을 연구하여 제작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우리 옷의 맥을 잇고 보전발전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참고문헌, 박물관과 도서관 도록으로 문헌연구를 하고 작품제작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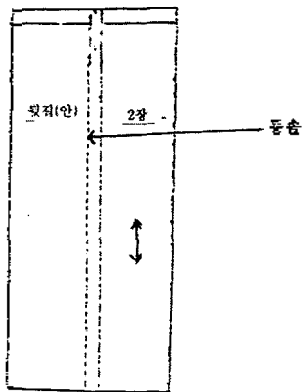
<그림 1> 장옷의 구성도

장옷의 일반적인 구성은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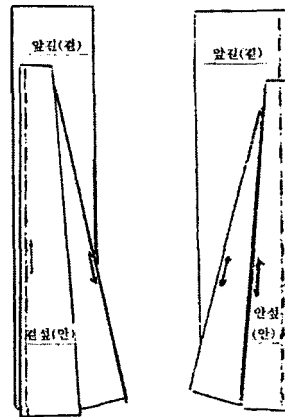
그리고 형태는 앞길의 좌우가 같은 모양이며, 목판깃이다. 실이 2개가 달려 옷의 폭을 넓게 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겨드랑이 아래에 삼각 또는 결무가 달려있으며, 소매 끝에는 흰색의 거들지를 넓게 대었다. 선단과 밑단 가장자리에서 3cm 들어와서 2뼘 상침으로 겉과 안을 고정시키는 역할과 장식을 겸하였다. 깃에는 동정을 달았다. (넓직한 흰 형질을 이마 정수리 부분에 달도록 단다.)

장옷 만드는 법

- (1) <그림 2>와 같이 등솔기를 박는다.
시점은 입어서 오른쪽이 되게 쥘는다.
- (2) 섶과 길 연결하기
 - ① = 큰섶+작은섶
 - ② = ①+길



<그림 2> 등솔박기



<그림 3> 섶과 길 연결하기

등솔

- (3) 깃달기 → 무+결부 연결하기 → 양 주머니 달기
- (4) 옆선·배래 박기
- (4) 길과 소매, 길과 무 연결하기 → 안만들기
- (5) 안과 결감 끼우기 → 고정상침하기 → 깃 마무리
- (6) 거들지와 등정, 끈고름 달기

이상의 연구결과는 우리 옷의 제작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을 보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현대 패션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